

[MACRO ISSUE]

매크로: 펀더멘털과 금리의 밀당



Contents

Executive Summary	03
매크로: 펀더멘털과 금리의 밀당	04
국내 신용사이클: 후기 확장기에서 선택적 수축기 진입	23
8월 캘린더	28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Executive Summary

매크로: 펀더멘털과 금리의 밀당

-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나, 미·이란 갈등, 높은 국채금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경기와 위험선호에 부담으로 작용
- 워시 체제는 채권시장의 신뢰 시험대 직면. 미 재무부는 미·일 환율 공조와 국채 수급 안정책을 통해 미국채 매도 위험과 장기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 현재 금리 상승에는 ‘좋은 금리 상승’과 ‘나쁜 금리 상승’이 공존. 경기 회복력과 생산성·잠재성장률 개선 기대는 실질금리를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공급발 인플레이션 충격과 재정·국채 수급 불안에 따른 기간프리미엄 상승은 금융여건을 긴축시키는 부정적 요인
- 유가 하락은 공급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으나, 재정적자와 국채 순공급을 구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움
- 재무부와 연준은 단기물 중심 조달, 쿠폰채 증액 억제, 바이백, FIMA·레포 지원 등을 통해 기간프리미엄을 낮추려 하겠지만 효과는 주로 단기적인 금리 급등 억제에 그칠 가능성.이에 따라 장기금리가 빠르게 정상화되기는 어려우며, 경기 펀더멘털과 국채 수급·정책 신뢰 사이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정치·경제적 비용과 주요국의 원유 재고 및 공급 대응 여력을 감안하면 긴장이 일방적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무게. 미국 경기와 고용 여전히 견조하나 고용심리 부진, 높은 시중금리, 인플레 압력 점진적 완화로 연준 동결 지속 전망

국내 신용사이클: 후기 확장기에서 선택적 수축기로 이동

- 한국 시스템 유동성은 안정적이거나 가계·중소기업·개인사업자·비은행·저신용 회사채에 선택적 신용 긴축이 진행
-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선반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실질금리 플러스 영역
- 단기자금시장 급성 스트레스는 징후 부재하나 비은행 조달여건은 악화, 주식시장 레버리지는 축소
- 상반기 가계신용 재가속, 하반기는 기준금리 인상, 규제 영향으로 Credit Impulse는 약해질 전망

8월 주요 이벤트: 여전히 핵심은 전쟁과 유가, 연준 가이던스 부재 속 미 고용, 물가 지표 중요도 UP, 잭슨홀, 재무부 QRA도 주목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매크로: 펀더멘털과 금리의 밀당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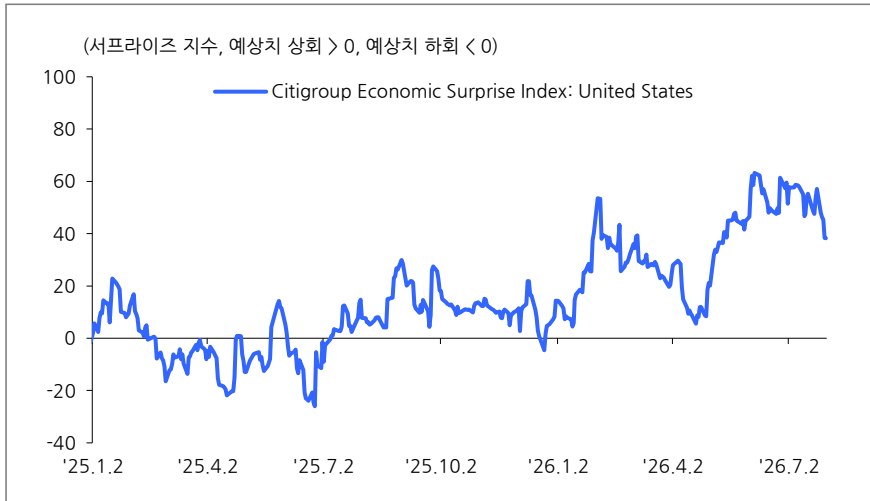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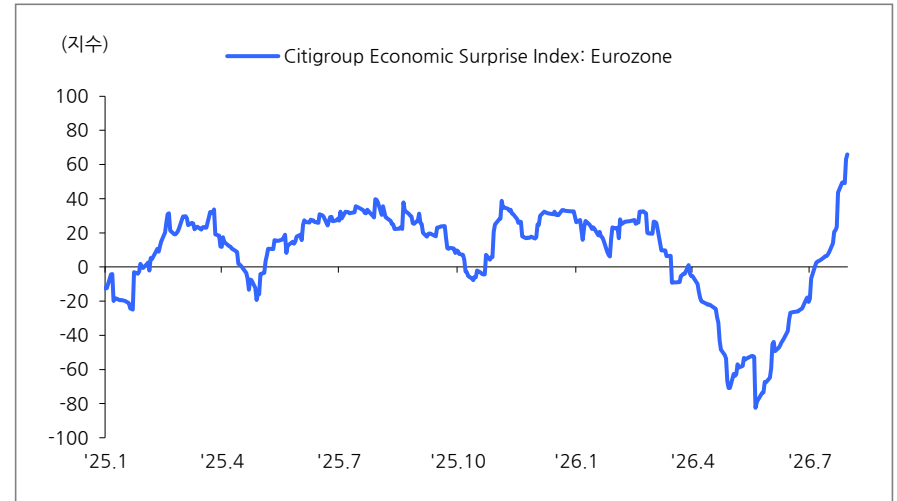
GLOBALITY

전쟁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경기(기대보다 견조한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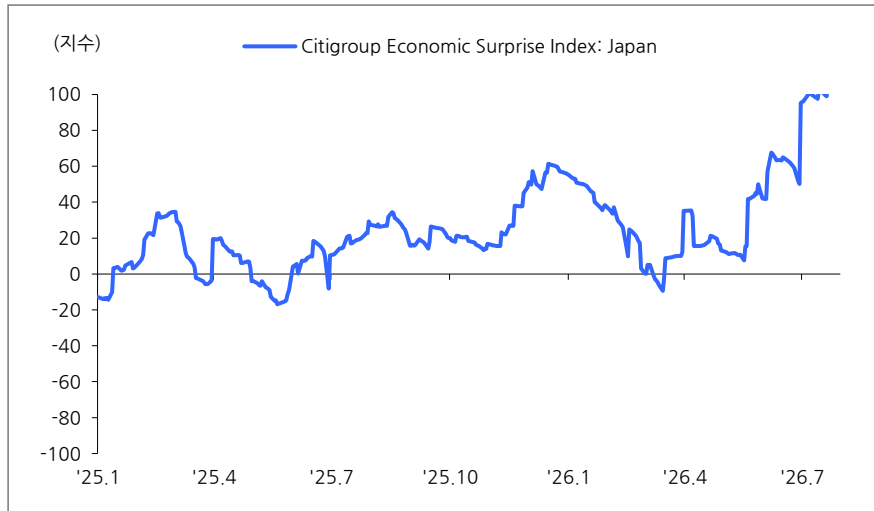
미국, Citi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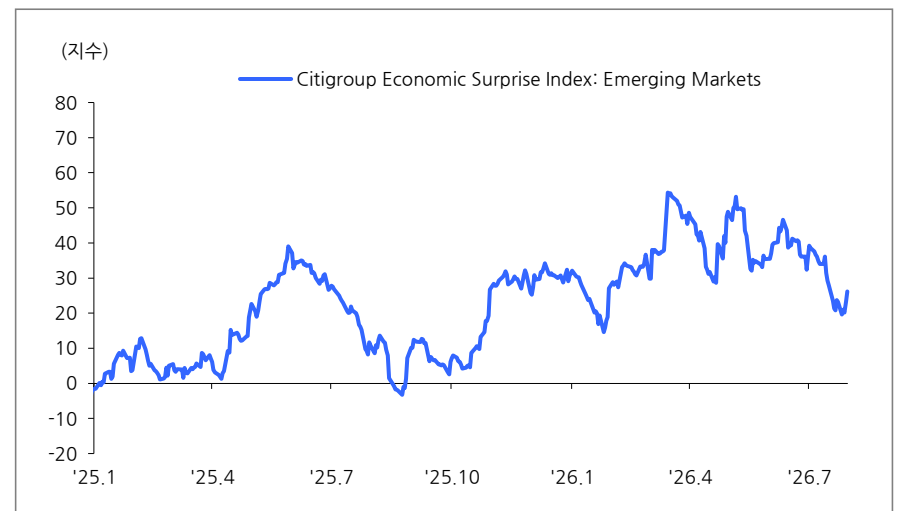
유로존, Citi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일본, Citi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신흥국, Citi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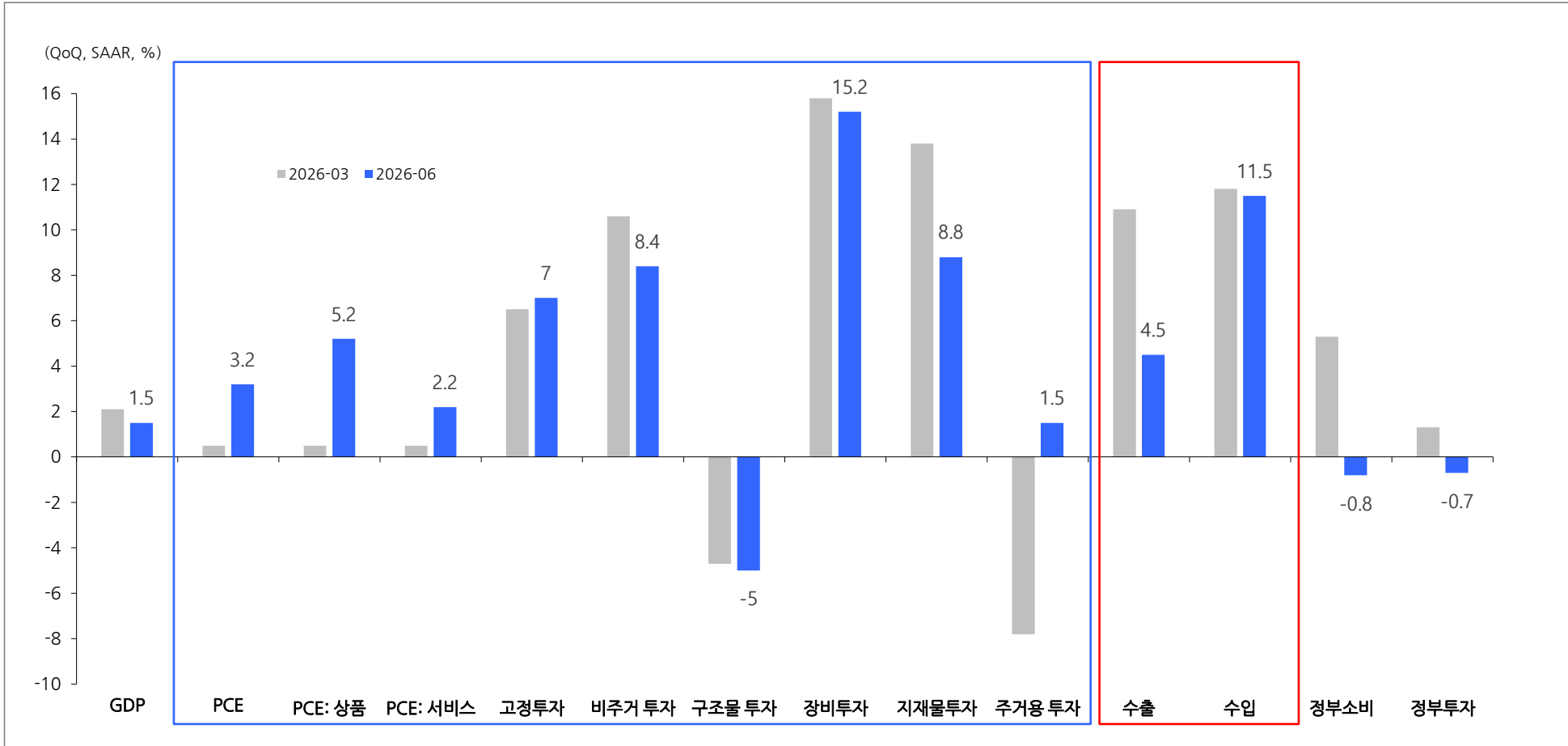


자료: 현대차증권

2분기 미국 GDP, 소비와 AI 연관 투자로 강한 내수 성장 확인

- 2분기 미국 경제, 헤드라인 GDP 성장률은 수입 증가로 둔화됐으나 강한 소비 회복세와 AI 관련 투자가 내수 성장을 견인(민간최종수요 +3.9%)

미국 2분기 GDP, 주요 지출 항목별 성장률



자료: CEIC, BEA,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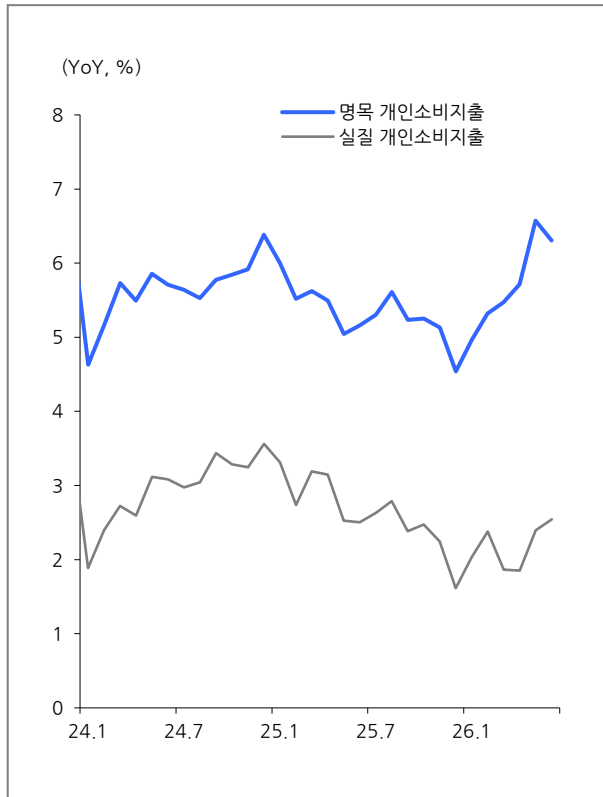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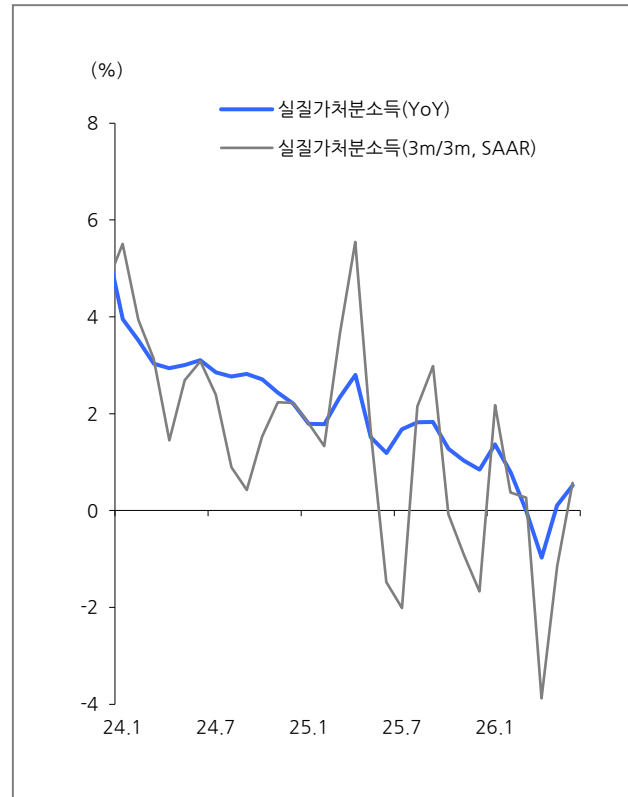
소비도 건조하나 건강하지는 못해(버퍼 축소, 고령/고소득 중심)

명목, 실질 개인소비지출(P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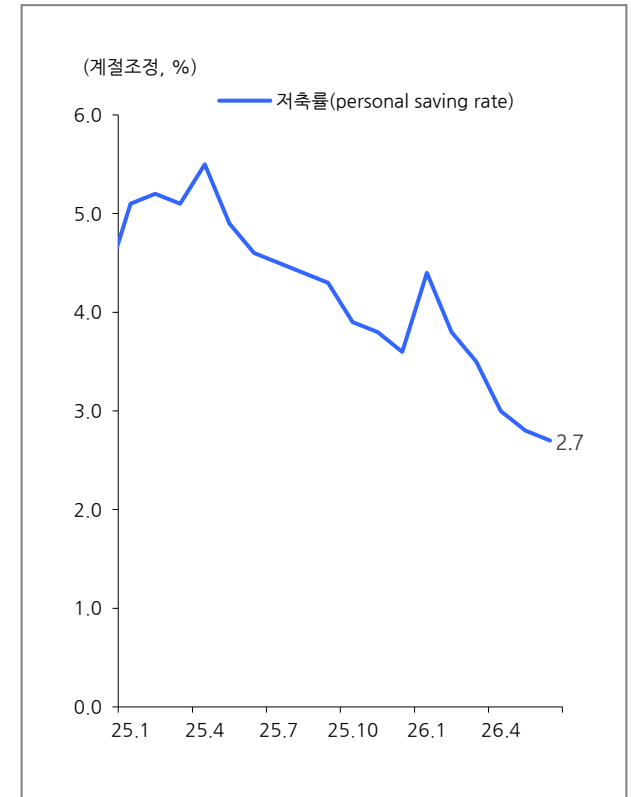
자료: FRED, 현대차증권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율 추이



자료: FRED, 현대차증권

저축률은 계속해서 하락



자료: FRED,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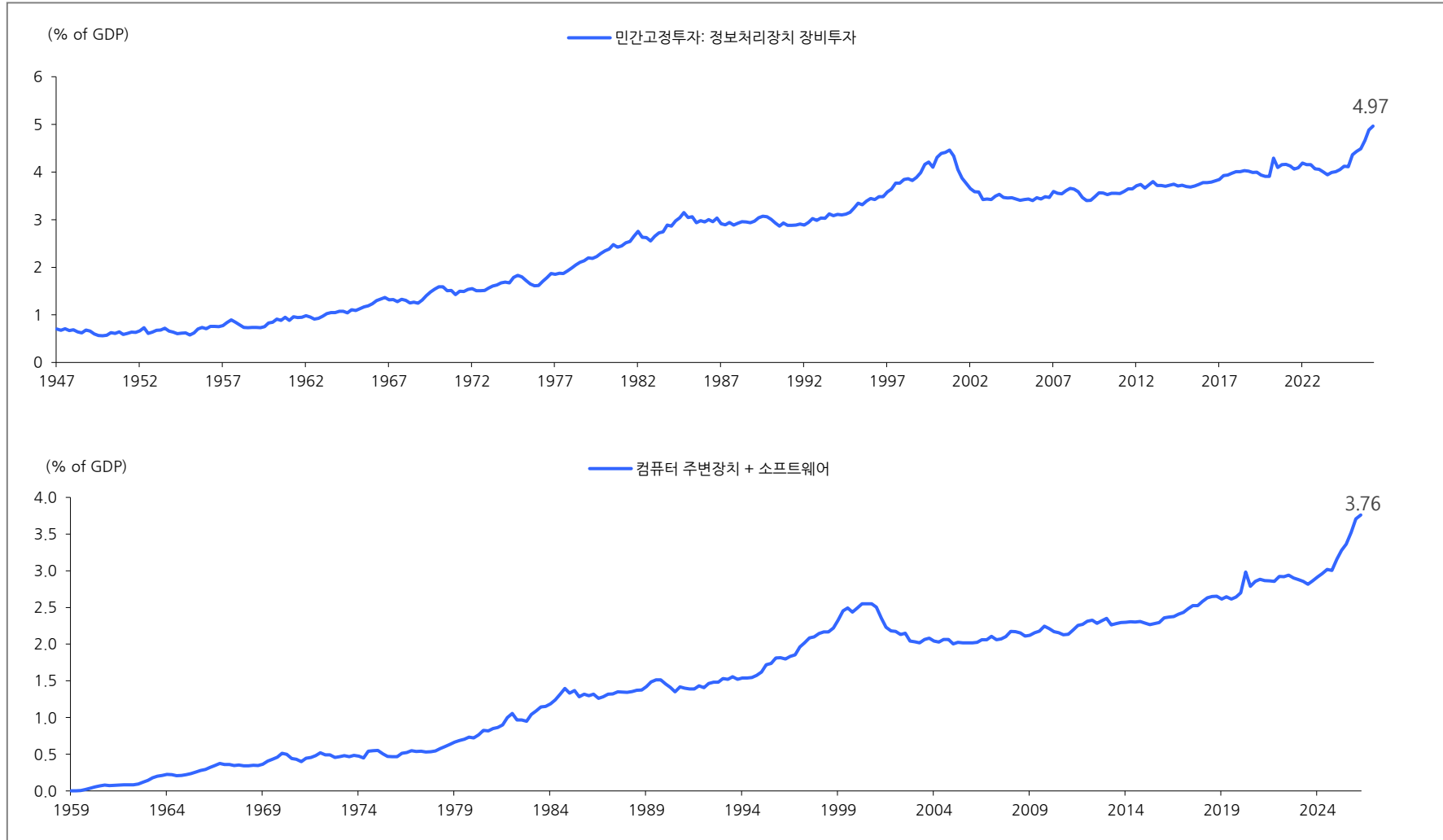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AI 연관 투자 규모 지속 확대 중



자료: FRED, BEA,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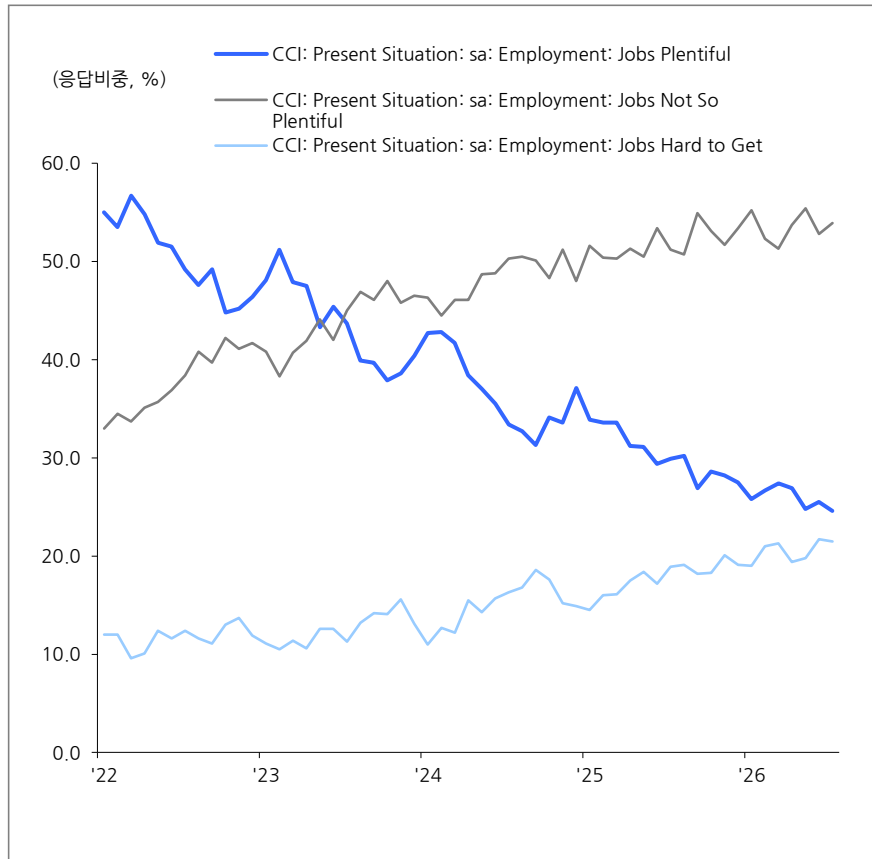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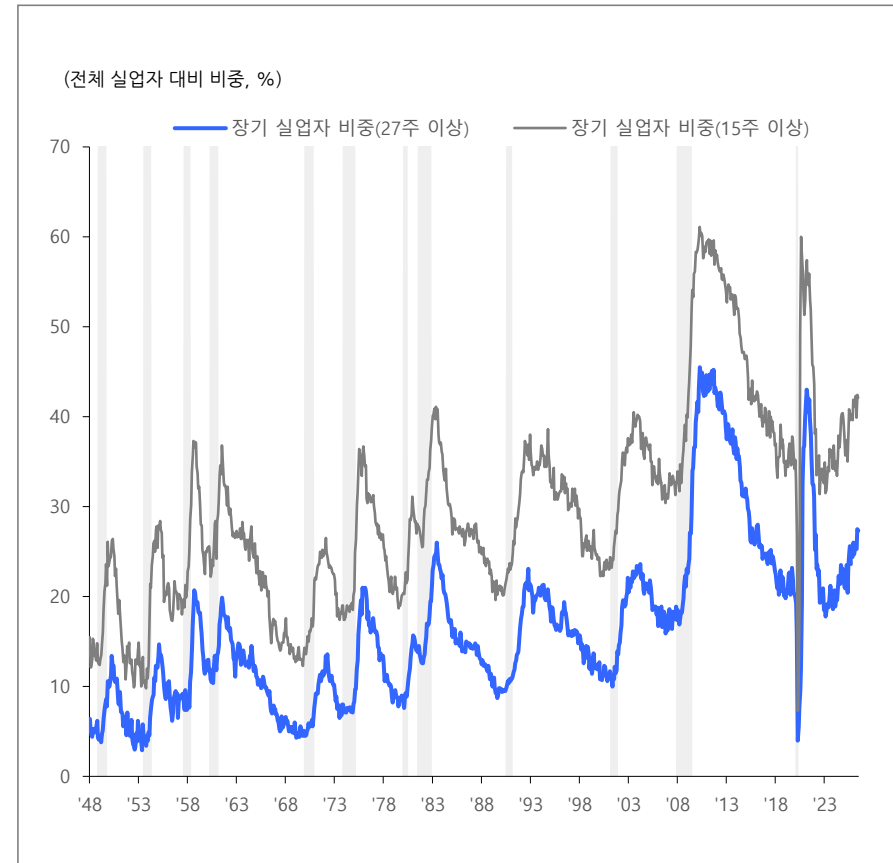
미국 고용, 아직은 견조해 보이지만 약한 고리도 존재

미국 고용 심리 부진 이어지는 중



자료: CEIC, Conference Board, 현대차증권

장기실업자 비중 오름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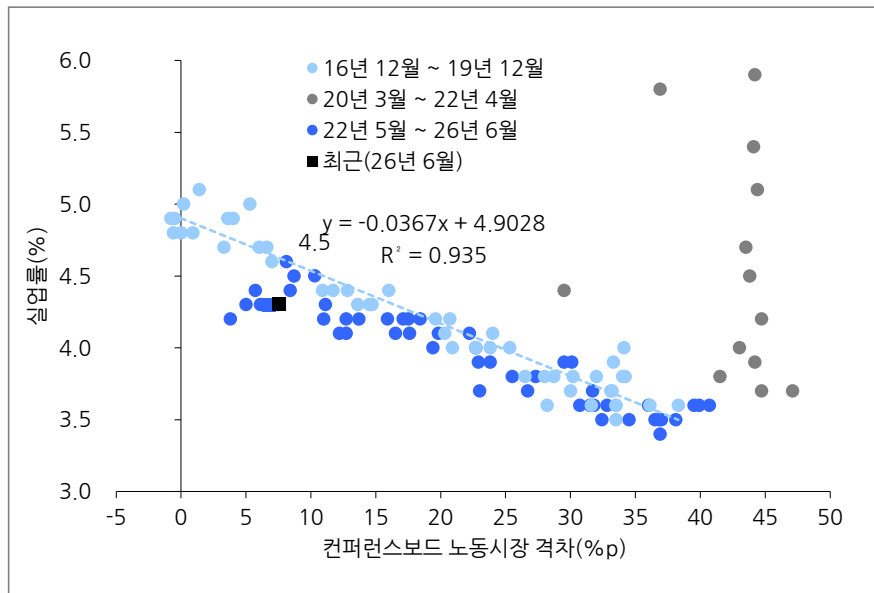
자료: FRED, BLS, 현대차증권



고용심리 부진은 여전하나 고용지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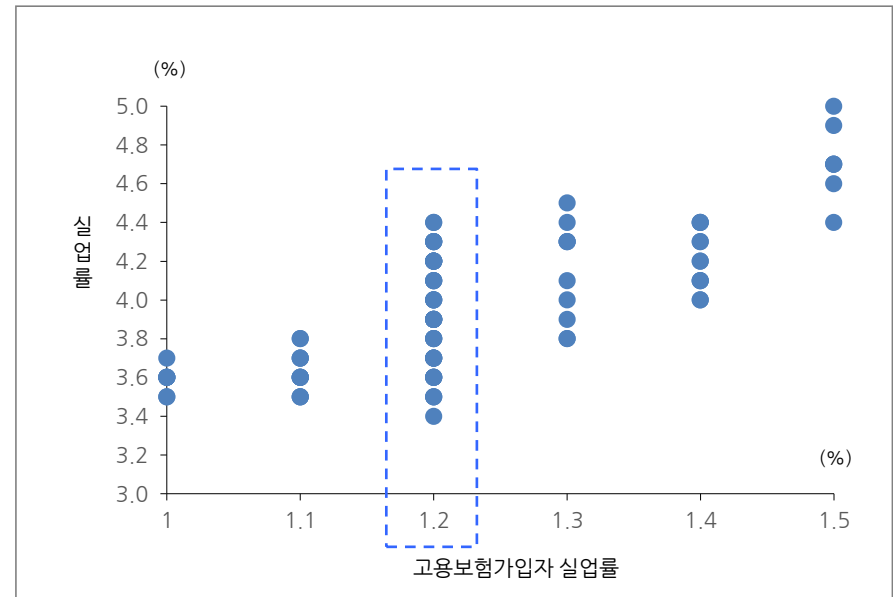
- 최근에도 고용심리 악화는 지속(컨퍼런스보드 노동시장 편차(일자리 풍부-일자리 부족)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대체로 안정적
- 고빈도 고용지표(주간 계속실업수당청구건수 기반 고용보험가입자 실업률)는 당분간 실업률이 4%대 초반에 머무를 가능성 시사

노동심리 악화는 실업률 상승 가능성을 예고



자료: CEIC, 현대차증권

다만, 고빈도 고용데이터는 실업률 상승 폭 제한적일 가능성 시사



자료: CEIC,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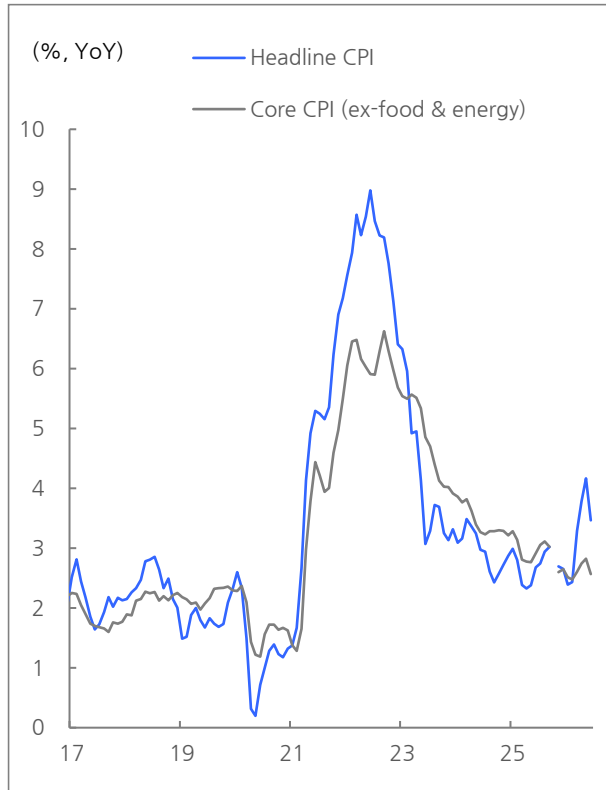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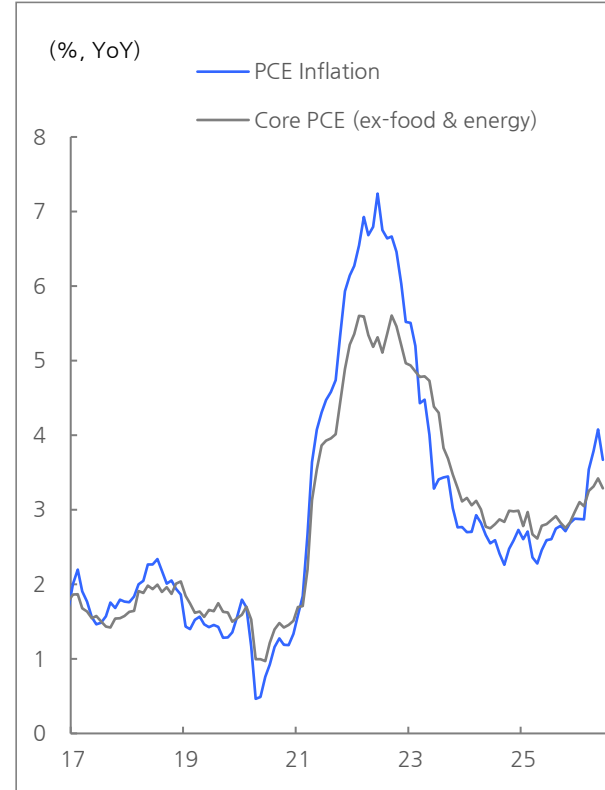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6월 지표에서는 개선됐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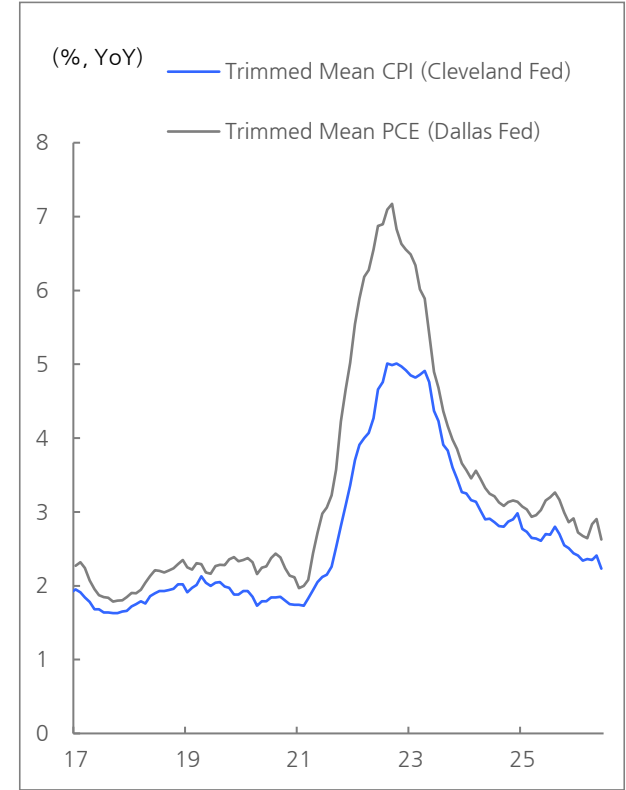


자료: FRED, 현대차증권

PCE, 근원 PCE



절사평균 CPI, PCE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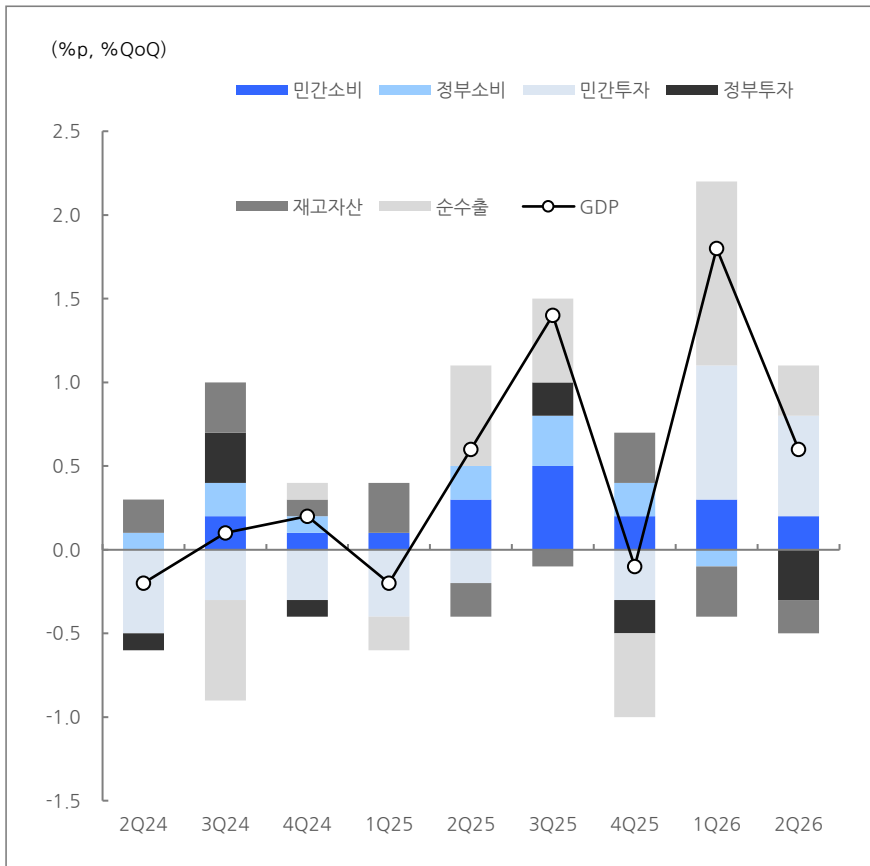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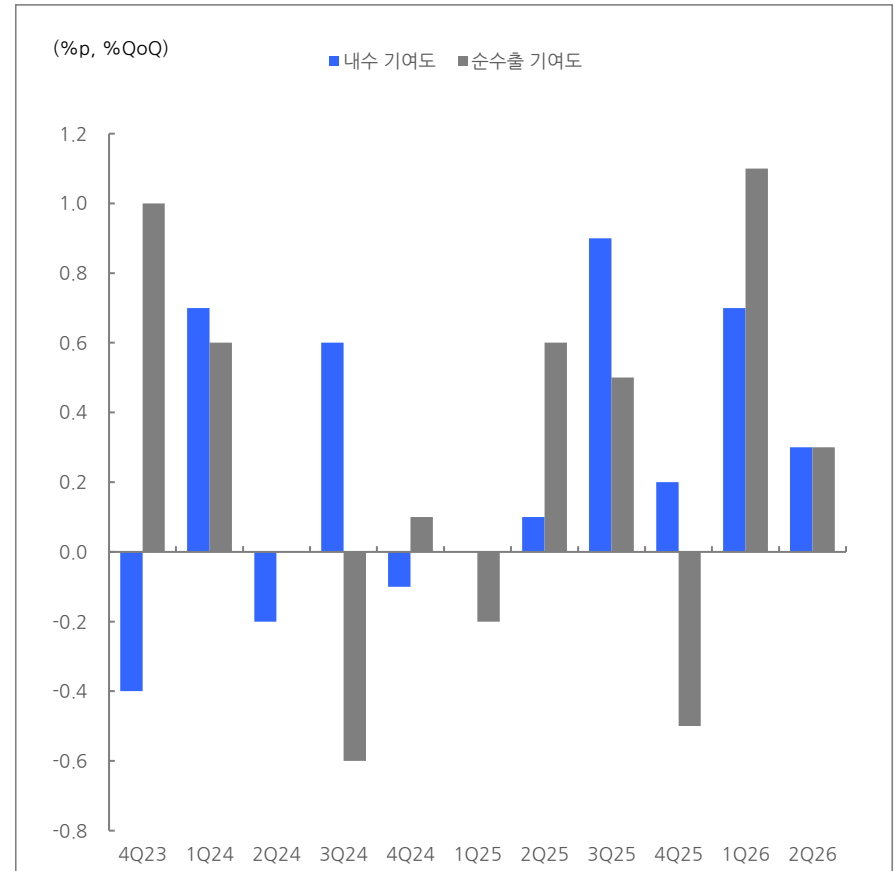
한국 GDP 견조

순수출과 민간투자(설비투자+R&D)가 성장 견인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내수 및 순수출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문제는 금리

하락의 열쇠는 여전히 유가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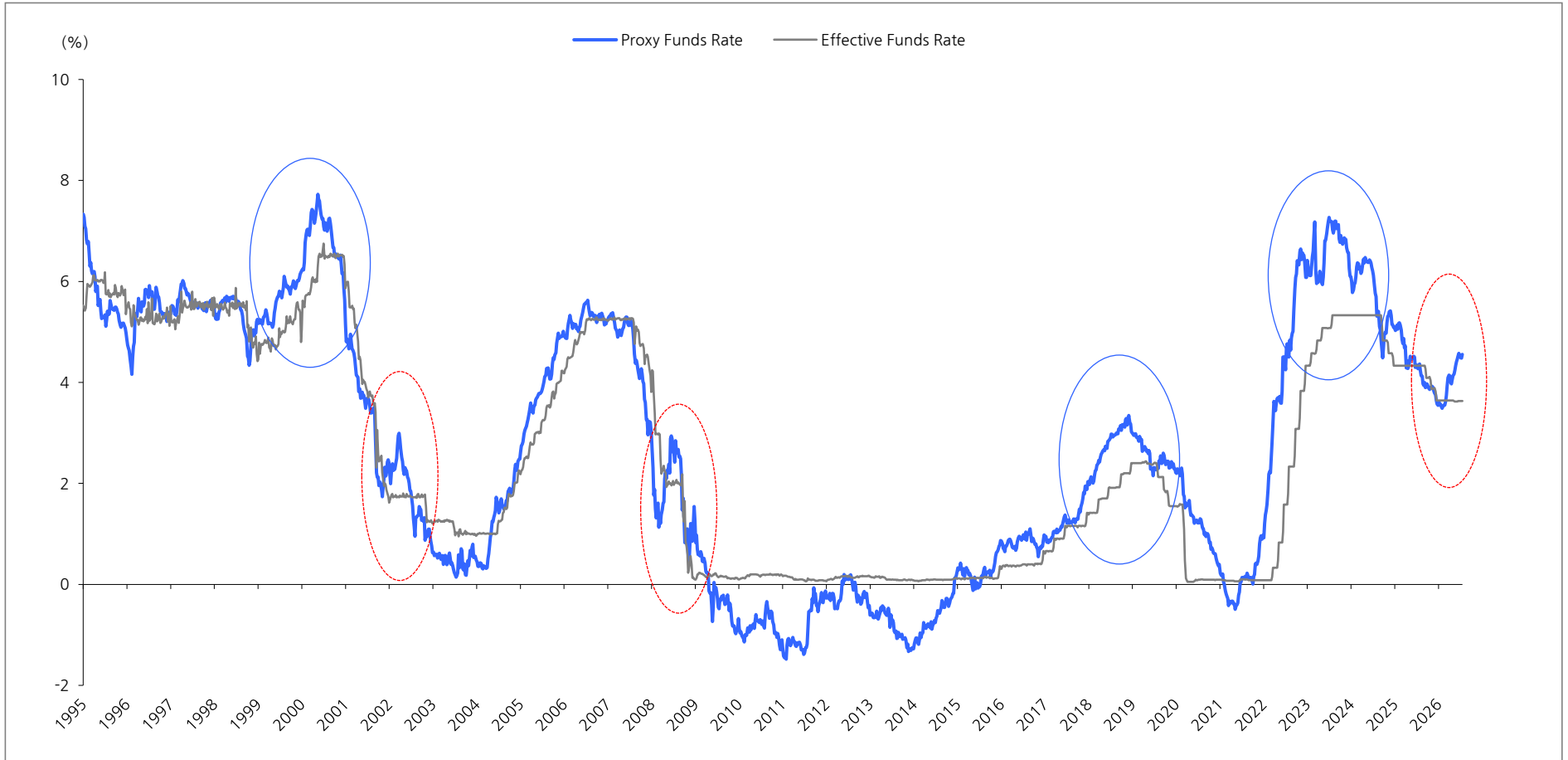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미국채 금리 고공행진

기준금리 5회 연속 동결에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프록시 기준금리(Proxy Funds Rate)는 큰 폭 상승



자료: Fed,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미국채 금리 상승 ① 연준 인상 기대 확대 ② 기간프리미엄 상승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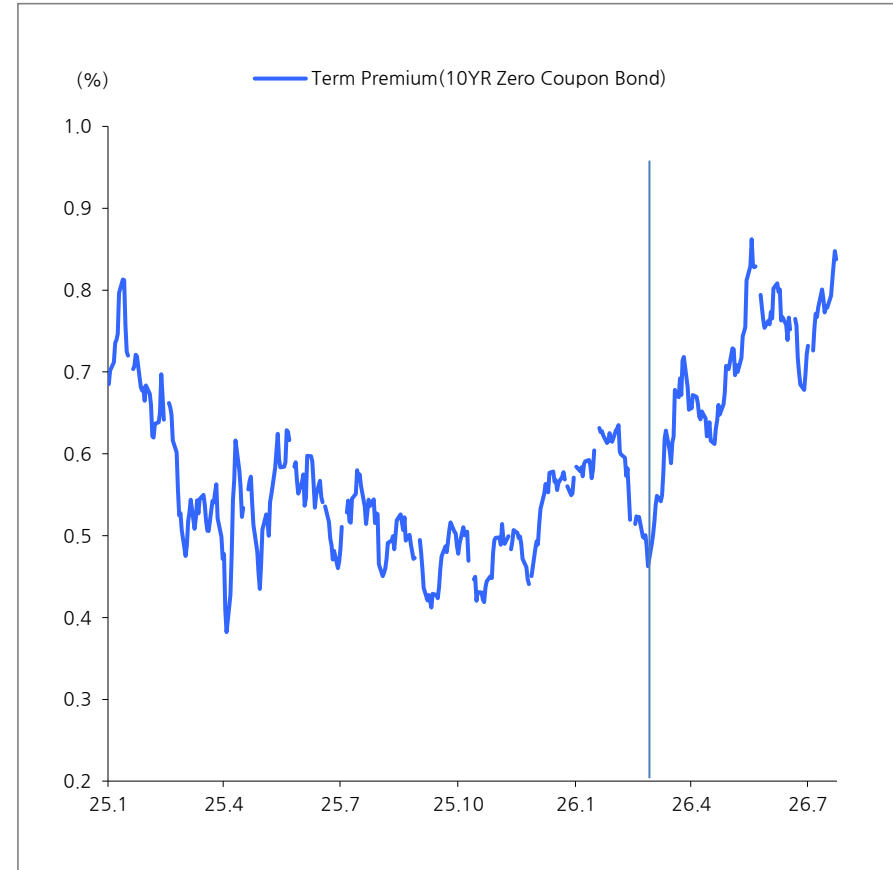
- ① 인플레이션, ② 견조한 미국 경기, ③ 재정적자, ④연준 신뢰도 이슈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와 더불어 기간 프리미엄 상승 주도

7월 미 국채 금리 재차 상승해 5월 고점 돌파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연준 인상 기대 +기간 프리미엄 상승이 금리 상승을 주도



자료: Fed DKW(2015),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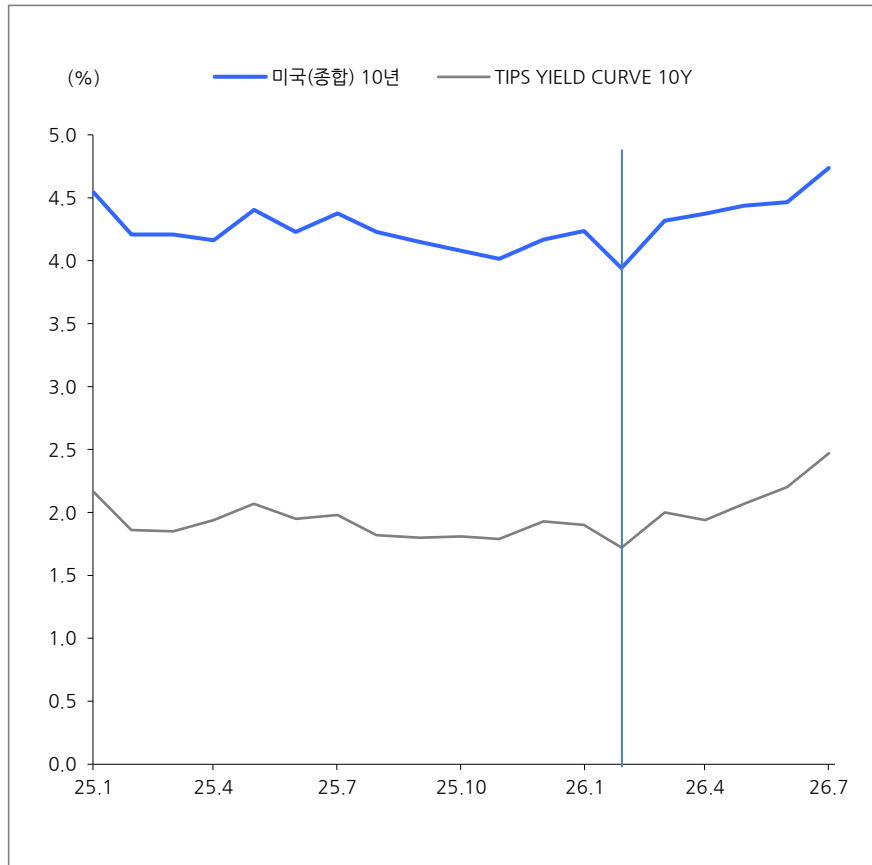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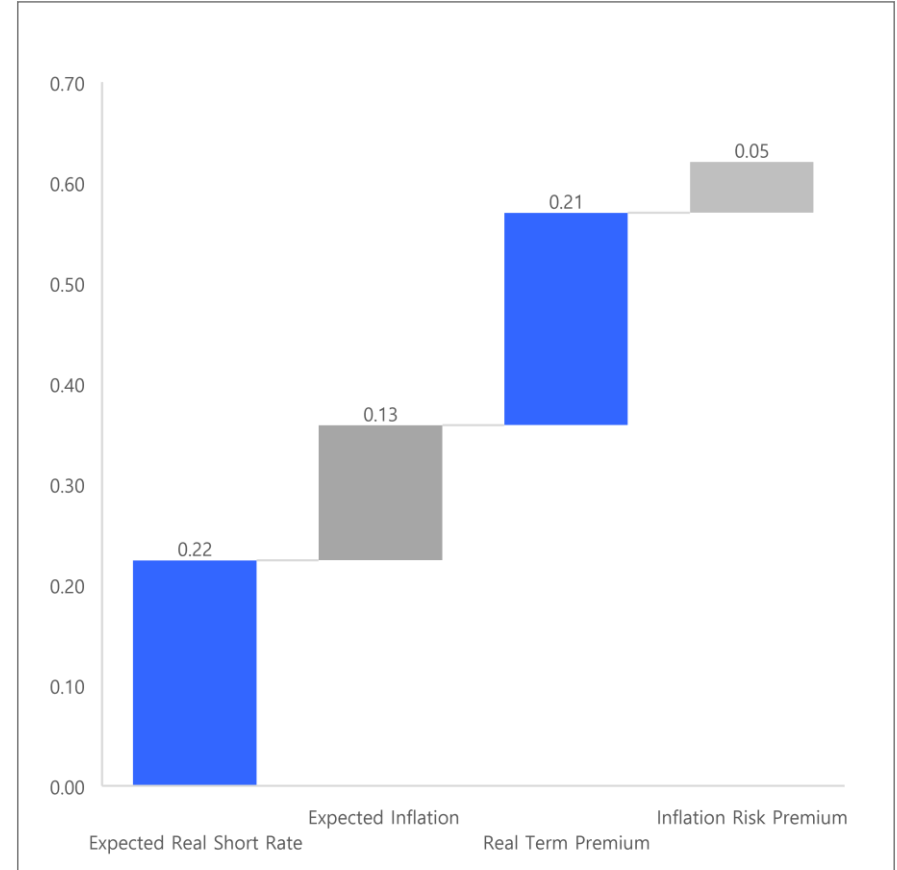
미국채 금리 상승 ① 연준 인상 기대 확대 ② 기간프리미엄 상승이 주도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TIPS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FRED, 현대차증권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폭 분해 결과



자료: Fed DKW(2015),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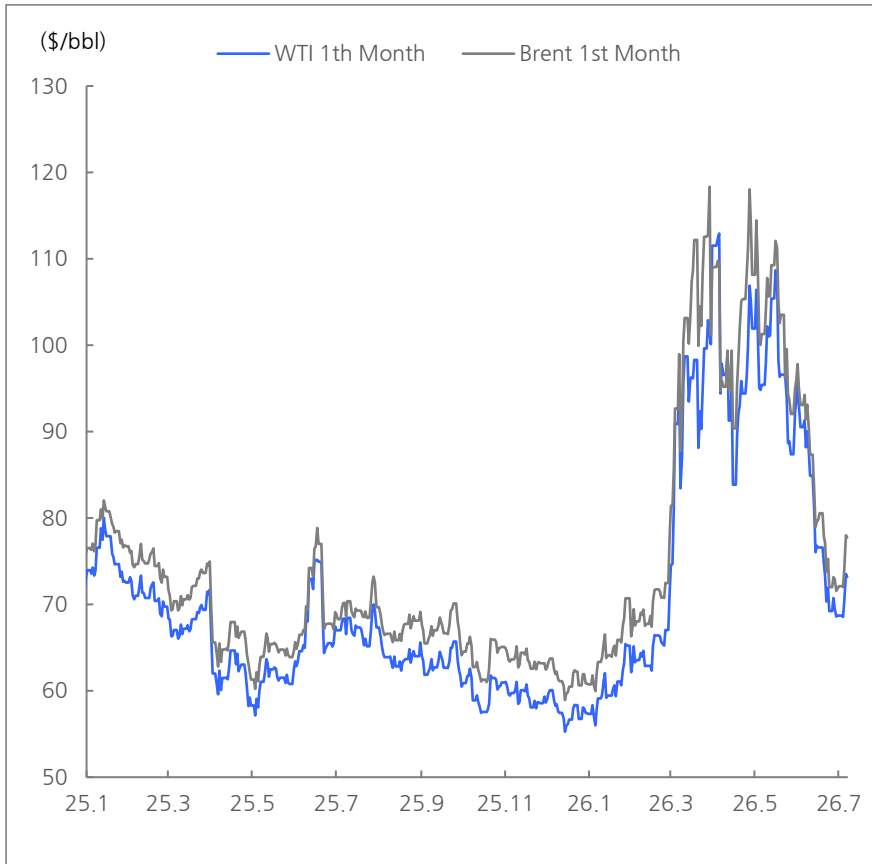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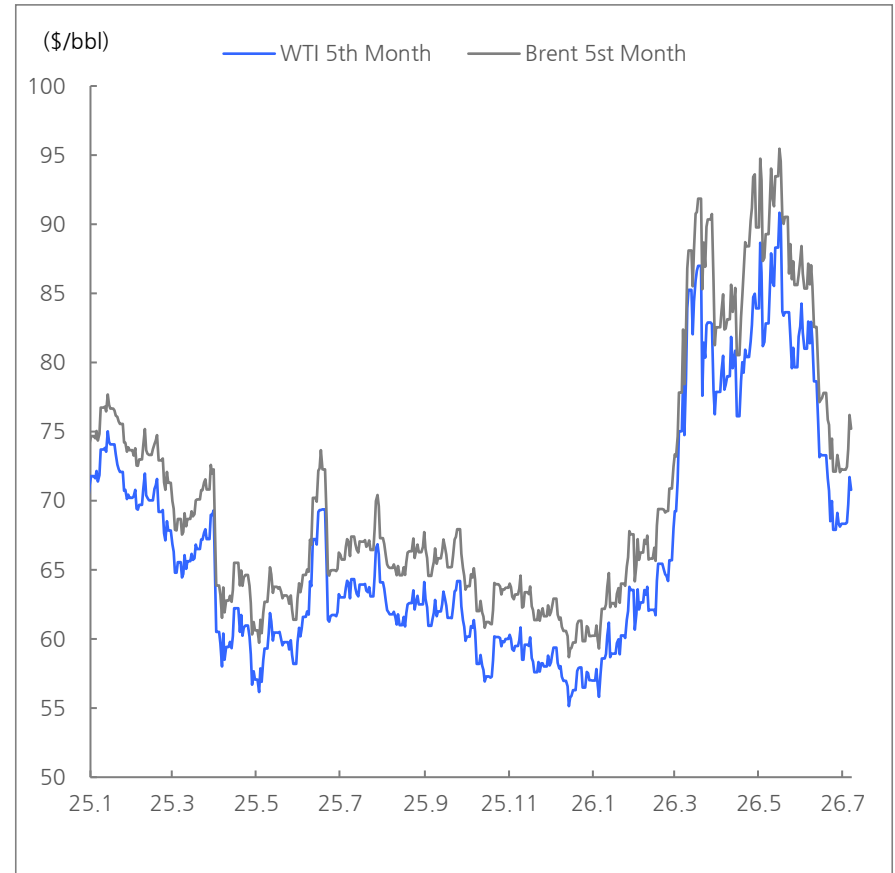
금리 하락의 트리거: 전쟁 상황과 유가 안정이 Key

WTI, 브랜트유 \$70 선에서 가격 형성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연말 선물시장도 \$70 선에서 가격 형성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SPR 최소 운영 레벨 거의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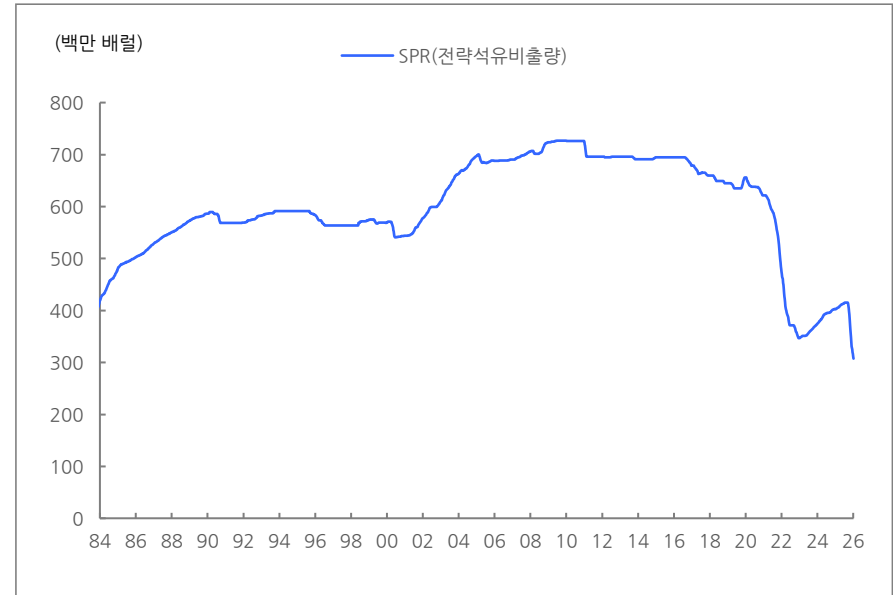
- 미국의 SPR은 1975년 에너지 위기 대비용으로 설립된 국가 비상석유 비축량이며,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60개 염분 공동에 최대 727M 배럴 저장 가능. 현재 311.4M 배럴(2026년 7월)로 2009년 정점 726M의 43% 수준으로 고갈된 상태(최소 운영 레벨 거의 도달)
- 고갈 원인은 2020년 코로나 50M, 2022년 우크라이나 180M, 2026년 이란 전쟁 172M 배럴의 연속 인출이며, 회복할 시간을 상실한 채 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

과거 주요 이벤트별 SPR 인출량

시기	행정부	사유	SPR 인출량
1991년	부시 주니어	걸프전(1차)	34M 배럴
2005년	부시 주니어	허리케인 카트리나	11M 배럴
2011년	오바마	리비아 내전	30M 배럴
2020년	트럼프 1기	COVID-19 팬데믹	50M 배럴
2022년	바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80M 배럴
2026년	트럼프 2기	미국-이란 전쟁	172M 배럴

자료: Responsible Statecraft, Fortune, EIA, DOE, 현대차증권

SPR 300만 배럴 수준까지 하락



자료: EIA,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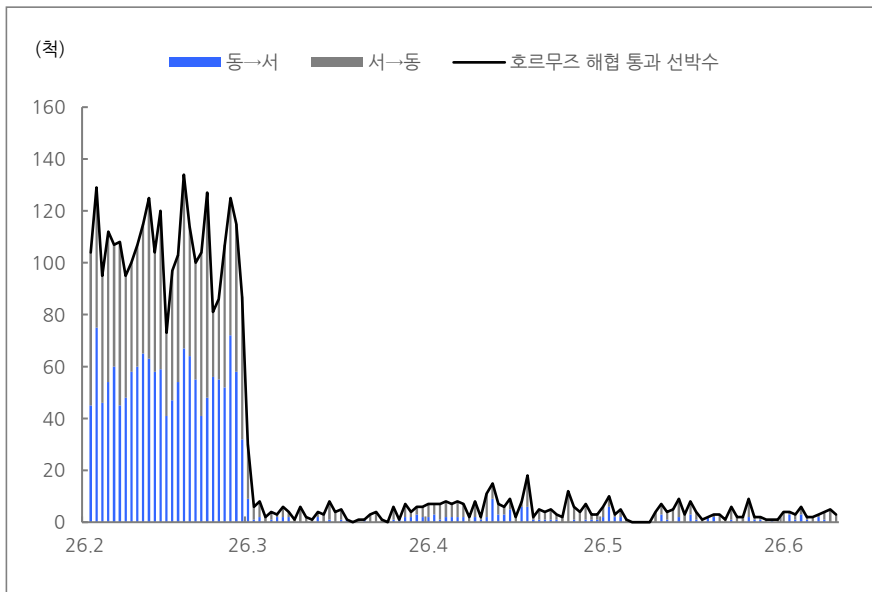


GLOBALITY

트럼프 행정부 정책 도구 대부분 소진

- 250M 이하에서의 기술적 한계는 담수가 소금을 녹이면서 공동 크기가 팽창하고 벽이 손상되는 염분 침식 현상으로, 결국 석유를 채굴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 구조
- 트럼프 행정부는 ①추가 SPR 인출 불가, ②미국 석유 생산 최대한계, ③Jones Act 이미 면제, ④의회 승인 불가에 직면한 상황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 여전히 저조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SPR 저장 메커니즘

항목	설명
물리적 구조	텍사스 · 루이지애나의 60개 염분 공동(Salt Cavern)
총용량	727M 배럴
최소 운영 레벨(MOL)	300M 배럴
기술적 한계	250M 배럴 이하 (저수준 채굴 시 염분 침식으로 공동 구조 붕괴 위험)

자료: Responsible Statecraft,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미재무부, 연준 미-일 외환시장 개입 공조

미-일, 98년 이후 첫 엔화 방어 공동개입

MARKETS & FINANCE • CURRENCIES

U.S., Japan Intervene to Boost Yen for First Time Since 1998

Intervention comes after the yen touched a 40-year low against the dollar late last month

자료: WSJ, 현대차증권

USDJPY 및 RSI 추이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미 재무부,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우선순위	예상 액션	현실성	10·30년물 영향	판단
1	쿠폰채 발행 동결	매우 높음	긍정적	발행 부담 완화
2	추가 조달의 T-bill · FRN 배분	매우 높음	긍정적	총차입 증가에도 듀레이션 공급 억제
3	장기물 바이백 확대	높음	소폭 긍정적	시장기능과 경과물 유동성 개선
4	FIMA Repo · SRF 활성화	높음	간접적 긍정	국내외 강제매도 위험 완화
5	연준의 반응함수 명확화	높음	긍정적	정책 신뢰 회복 시 기간프리미엄 하락
6	eSLR · 중앙청산 개선	중~높음	장기적 긍정	국채시장 흡수능력 확대
7	TGA 일시 축소	중간	단기 긍정	발행을 미래로 이연하는 효과
8	Operation Twist	중간 이하	강한 긍정	금리 금동 지속 또는 경기둔화 시 검토
9	QE · 시장기능 매입	낮음	매우 강한 긍정	금융시장 기능 훼손이 전제
10	YCC	매우 낮음	가장 강함	극단적 위기 외에는 비현실적

주: 파란색 빗금칠된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높음', 빨간색 빗금칠된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자료: US Treasury, Fed, 현대차증권

미 재무부,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상세)

구분	정책수단	작동 경로	주 영향 구간	장기금리 효과	현실성	주요 한계·부작용
재무부	장기 쿠폰채 발행 동결	민간의 장기 듀레이션 흡수 부담 억제	10~30년	중간	매우 높음	총차입 규모는 줄지 않음
재무부	T-bill 중심 추가 조달	장기채 대신 단기물로 공급 이전	단기물 · 10~30년	중간	매우 높음	차환위험 및 MMF · 레포시장 부담 증가
재무부	FRN 발행 확대	고정금리 장기채 대신 변동금리채로 조달	2년 이하 · 장기물	소~중	높음	정부 이자비용의 단기금리 민감도 상승
재무부	20 · 30년물 축소, 2~5년 물 확대	초장기 듀레이션 공급 감소	20~30년	중~큼	중간	만기구조 단축으로 재정 차환위험 증가
재무부	장기물 바이백 확대	경과물 매입 및 민간 장기채 보유량 감소	10~30년	소~중	높음	규모가 작으면 금리수준 효과 제한
재무부	T-bill 발행 후 장기물 바이백	재무부 차원의 만기단축형 Twist	10~30년	중~큼	중간	정책적 금리관리 논란 가능
재무부	TGA 잔액 축소	보유현금 사용으로 신규 발행 일시 연기	전 구간	단기적	중간	이후 TGA 재축적 시 발행 부담 재발
재무부 · 연준	FIMA Repo 확대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채 강제매각 방지	전 구간 · 장기물	간접적	높음	신규 수요 창출보다 매도 억제 효과
재무부 · 연준	외환시장 공동개입	일본 등 동맹국의 자체 개입 부담 및 미국채 매각 필요 축소	FX · 미국채	간접적	상황 의존	환율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 일시적
연준	반응함수 · 2% 목표 명확화	인플레이션 · 정책 불확실성 프리미엄 축소	10~30년	중~큼	높음	말보다 실제 정책행동의 일관성이 필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단기금리 경로 하향	2~10년	중~큼	데이터 의존	조기 인하 시 기대인플레이 · 기간프리미엄 상승 가능
연준	필요 시 선제적 인상	물가 신뢰 회복으로 장기 위험프리미엄 하락	2년 상승, 10~30년 안정	중간	중간	단기 금융여건은 더 긴축적
연준	준비금관리 매입의 만기 장기화	T-bill 대신 5~10년 국채 매입	5~10년	중간	중간	사실상 QE로 인식될 가능성
연준	Operation Twist	단기채 축소 · 장기채 매입으로 듀레이션 제거	10~30년	큼	중간 이하	재정지배 · 독립성 논란
연준	시장기능 회복 목적 매입	시장 마비 시 강제매도 흡수	스트레스 구간	큼	스트레스 시 높음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는 실행 어려움
연준	QE 재개	장기채 대규모 순매입으로 기간프리미엄 압축	5~30년	매우 큼	낮음	인플레이션 · 달러 · 재정지배 위험
연준	수익률곡선통제(YCC)	특정 금리 상한을 무제한 매입으로 방어	목표 만기	매우 큼	매우 낮음	대차대조표 급증과 신뢰도 훼손
연준	SRF 확대 · 조건 완화	달러의 국채 담보 현금조달 지원, 금매 방지	레포 · 전 구간	간접적	높음	균형금리보다 시장기능 안정에 효과
규제당국	eSLR · GSIB 규제 완화	은행 · 달러의 국채 보유 및 중개능력 확대	전 구간	간접적	중~높음	은행 레버리지 · 금융안정 위험
규제당국	중앙창산 · 크로스마진 확대	대차대조표 사용량 및 거래상대방 위험 감소	전 구간	장기적 · 간접적	높음	시행 시차가 길고 초기 비용 발생
정부 · 의회	재정적자 축소	국채 총공급과 재정위험 프리미엄 동시 축소	10~30년	가장 지속적	단기 낮음	정치적 난도가 매우 높음

자료: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신용사이클 점검

후기 확장기에서 선택적 수축기로 이동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국내 신용 사이클 국면

현재국면 판단

현재 국면 판단			
영역	신호	근거	투자 해석
시장금리	긴축	국고3년미 기준금리를 약 101bp 상회	성장주 할인율 · 차환비용 부담
신용가격	차별적 긴축	AA- · 저등급 스프레드 확대, CP-CD는 안정	시스템 유동성 위기보다 등급 차별화
가계신용	규제 전 재가속	5~6월 가계대출 +17.6조원	규제 이후 신용충격 둔화 가능성
기업신용	대기업 편중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음	수출 · 우량 대형주 상대 우위
신용품질	취약부문 악화	중소기업 연체율 1.00%, PF 4.65%, 토담대 31.88%	건설 · 개인사업자 · 비은행 선별 주의

자료: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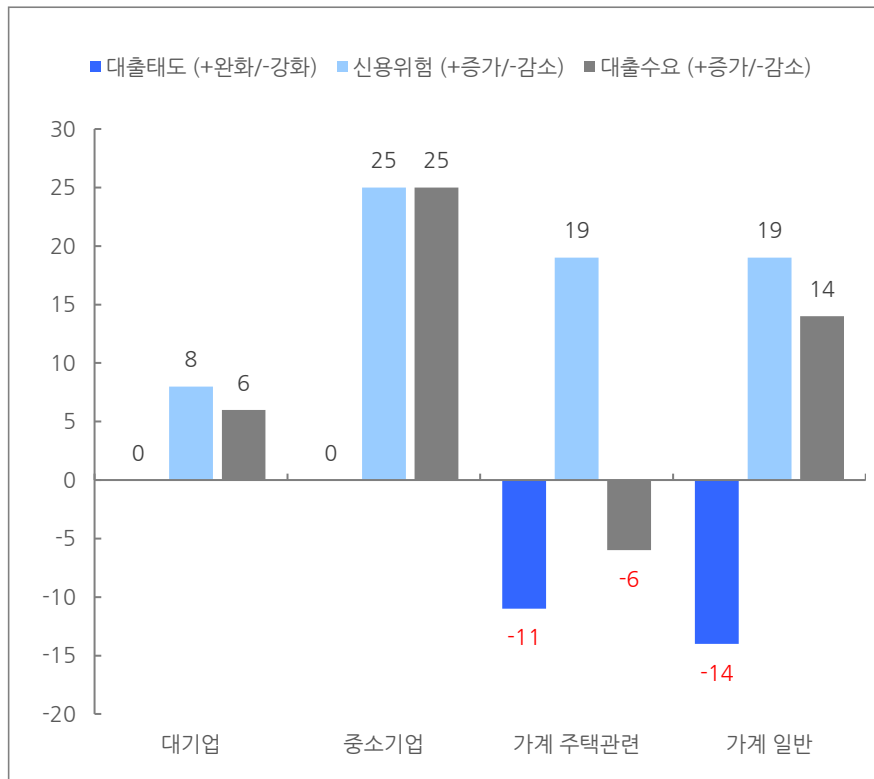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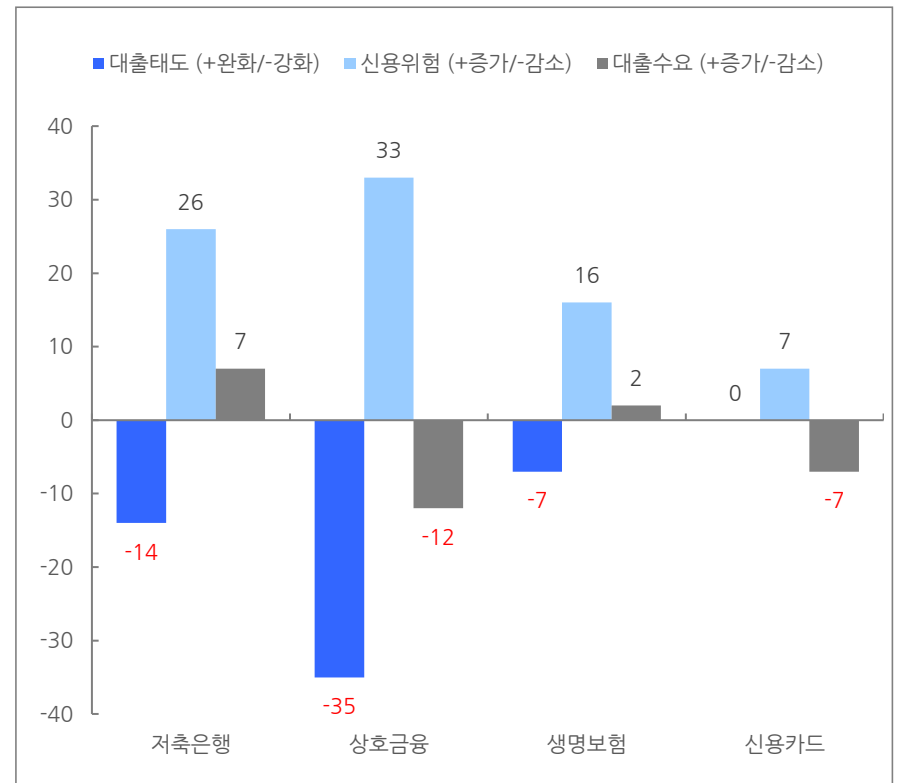
국내 신용 사이클 국면

국내은행 차주별 대출행태지수 (26년 3/4분기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대출행태지수 (26년 3/4분기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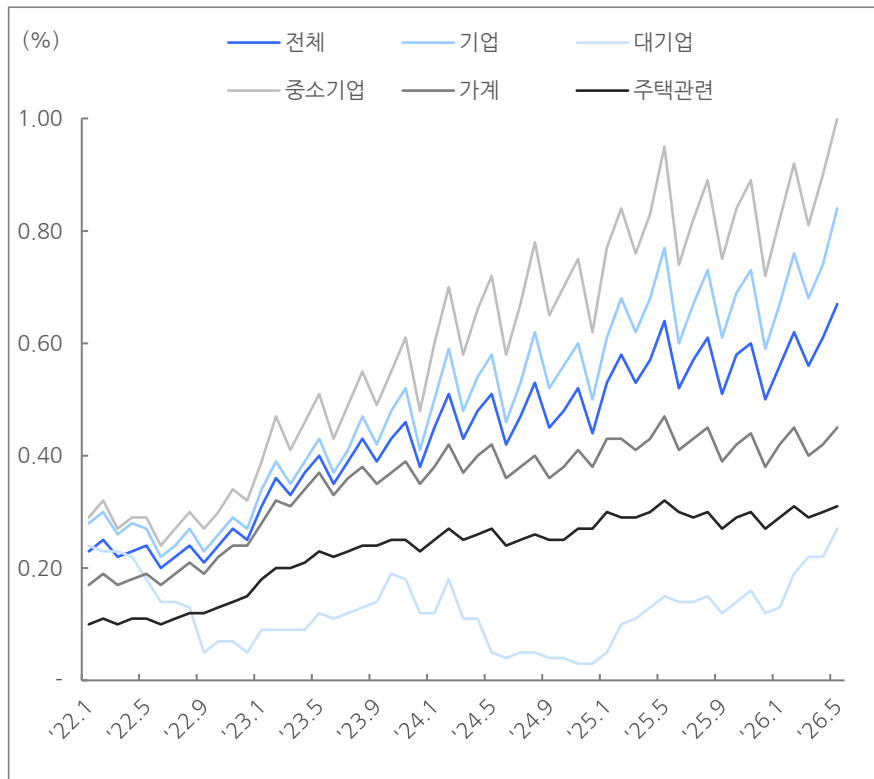
PEOPLE



GLOBALITY

국내 신용 사이클 국면

예금은행 지역별 연체율



자료: ECOS, 현대차증권

회사채 등급별 최신 발행 · 만기 · 순발행

월	등급	등급별 최신 관측치		
		발행액	만기액	순발행액
2026-07	AAA	35,800	15,300	20,500
2026-07	AA+	12,500	7,400	5,100
2026-08	AA	-	1,700	(1,700)
2026-07	AA-	9,100	13,750	(4,650)
2026-07	A+	770	4,500	(3,730)
2026-07	A	350	1,900	(1,550)
2026-07	A-	2,000	3,217	(1,217)
2026-07	BBB+	400	1,710	(1,310)
2026-07	BBB	-	470	(470)
2026-04	BBB-	400	-	400
2026-08	CP A1	-	14	(14)

주: 단위=억원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27

(조원)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합계

연월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합계
'21.1	5.0	0.0	5.0
'21.2	8.0	0.0	8.0
'21.3	10.0	0.0	10.0
'21.4	25.0	0.0	25.0
'21.5	5.0	0.0	5.0
'21.6	15.0	0.0	15.0
'21.7	8.0	0.0	8.0
'21.8	7.0	0.0	7.0
'21.9	6.0	0.0	6.0
'21.10	5.0	0.0	5.0
'21.11	0.0	0.0	0.0
'21.12	-2.0	0.0	-2.0
'22.1	3.0	0.0	3.0
'22.2	0.0	0.0	0.0
'22.3	-3.0	0.0	-3.0
'22.4	2.0	0.0	2.0
'22.5	1.0	0.0	1.0
'22.6	0.0	0.0	0.0
'22.7	2.0	0.0	2.0
'22.8	0.0	0.0	0.0
'22.9	2.0	0.0	2.0
'22.10	0.0	0.0	0.0
'22.11	-1.0	0.0	-1.0
'22.12	2.0	0.0	2.0
'23.1	-3.0	0.0	-3.0
'23.2	-8.0	0.0	-8.0
'23.3	-5.0	0.0	-5.0
'23.4	-5.0	0.0	-5.0
'23.5	3.0	0.0	3.0
'23.6	4.0	0.0	4.0
'23.7	6.0	0.0	6.0
'23.8	0.0	0.0	0.0
'23.9	6.0	0.0	6.0
'23.10	3.0	0.0	3.0
'23.11	6.0	0.0	6.0
'23.12	0.0	0.0	0.0
'24.1	4.0	0.0	4.0
'24.2	-5.0	0.0	-5.0
'24.3	4.0	0.0	4.0
'24.4	5.0	0.0	5.0
'24.5	0.0	0.0	0.0
'24.6	5.0	0.0	5.0
'24.7	9.0	0.0	9.0
'24.8	6.0	0.0	6.0
'24.9	7.0	0.0	7.0
'24.10	0.0	0.0	0.0
'24.11	3.0	0.0	3.0
'24.12	-4.0	0.0	-4.0
'25.1	5.0	0.0	5.0
'25.2	0.0	0.0	0.0
'25.3	4.0	0.0	4.0
'25.4	7.0	0.0	7.0
'25.5	6.0	0.0	6.0
'25.6	0.0	0.0	0.0
'25.7	4.0	0.0	4.0
'25.8	0.0	0.0	0.0
'25.9	5.0	0.0	5.0
'25.10	-1.0	0.0	-1.0
'25.11	3.0	0.0	3.0
'25.12	4.0	0.0	4.0
'26.1	0.0	0.0	0.0
'26.2	3.0	0.0	3.0
'26.3	4.0	0.0	4.0
'26.4	5.0	0.0	5.0
'26.5	9.0	0.0	9.0
'26.6	4.0	0.0	4.0



GLOBALITY

The chart displays the trend of new credit utilization (신용용자잔고) in billions of won from 2020 to 2026. The Y-axis represents the amount in billions of won, ranging from 0 to 40.0. The X-axis represents time in quarters, with labels for '20.1, '21.1, '22.1, '23.1, '24.1, '25.1, and '26.1. The line shows a general upward trend, starting around 10 billion won in early 2020, dipping to a low of about 7 billion won in early 2020, then rising to a peak of approximately 25 billion won in late 2021. It then fluctuates, with a notable dip to around 16 billion won in early 2023, followed by a recovery to about 20 billion won by mid-2023. The trend continues to rise, reaching a sharp peak of nearly 38 billion won in early 2026, before dropping significantly to around 29 billion won by the end of the period shown.

Year/Quarter	신용용자잔고 (조원)
'20.1	10.0
'20.2	7.0
'20.3	10.0
'20.4	12.0
'20.5	16.0
'20.6	16.0
'20.7	18.0
'20.8	21.0
'20.9	21.0
'20.10	23.0
'20.11	23.0
'20.12	24.0
'21.1	25.0
'21.2	24.0
'21.3	23.0
'21.4	21.0
'21.5	21.0
'21.6	22.0
'21.7	22.0
'21.8	18.0
'21.9	19.0
'21.10	17.0
'21.11	16.0
'21.12	17.0
'22.1	16.0
'22.2	18.0
'22.3	19.0
'22.4	18.0
'22.5	19.0
'22.6	20.0
'22.7	17.0
'22.8	17.0
'22.9	18.0
'22.10	18.0
'22.11	19.0
'22.12	19.0
'23.1	19.0
'23.2	19.0
'23.3	19.0
'23.4	19.0
'23.5	19.0
'23.6	19.0
'23.7	19.0
'23.8	19.0
'23.9	19.0
'23.10	19.0
'23.11	19.0
'23.12	19.0
'24.1	19.0
'24.2	19.0
'24.3	19.0
'24.4	19.0
'24.5	19.0
'24.6	19.0
'24.7	19.0
'24.8	19.0
'24.9	19.0
'24.10	19.0
'24.11	19.0
'24.12	19.0
'25.1	19.0
'25.2	19.0
'25.3	19.0
'25.4	19.0
'25.5	19.0
'25.6	19.0
'25.7	19.0
'25.8	19.0
'25.9	19.0
'25.10	19.0
'25.11	19.0
'25.12	19.0
'26.1	19.0
'26.2	19.0
'26.3	19.0
'26.4	19.0
'26.5	19.0
'26.6	19.0
'26.7	19.0
'26.8	19.0
'26.9	19.0
'26.10	19.0
'26.11	19.0
'26.12	19.0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월간 경제 캘린더

2026년 8월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1 한 7월 수출/입(%YoY) (예상 58.0, 28.0) (이전(수정) 70.7, 30.0)
3 한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이전 52.1) 미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이전 53.8) 미 7월 ISM 제조업 PMI(예상 54.0 이전 53.3)	4 한 7월 CPI(%YoY)(이전 +3.2) 한 7월 CPI(%MoM)(이전 +0.1) 미 6월 수출/입(%MoM)(이전 -3.2, +3.3) 미 6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이전 7,594k) 일정 미 재무부 QRA 1차 (04:00)	5 미 7월 ADP취업자 변동(예상 75k 이전 98k) 미 7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F)(이전 53.6) 미 7월 S&P 글로벌 종합 PMI(F)(이전 53.6) 미 7월 ISM 서비스업 PMI(예상 54.3 이전 54.0) 일정 미 재무부 QRA 2차 (21:30)	6 한 6월 경상수지 미 7월 Challenger 해고자 지수(%YoY) (이전 53.6)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 미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예상 88k 이전 57k) 미 7월 실업률(%)(예상 4.3 이전 4.2)	8
10	11 한 8월 1~10월 수출/입(%YoY)(이전 +53.9, +17.4) 미 7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이전 97.4)	12 한 7월 실업률(%)(이전 2.7) 미 7월 CPI(%YoY)(이전 +3.5) 미 7월 CPI(%MoM)(이전 -0.4) 미 7월 근원 CPI(%YoY)(이전 +2.6) 미 7월 근원 CPI(%MoM)(이전 +0.0)	13 미 7월 PPI(%YoY)(이전 +5.5) 미 7월 PPI(%MoM)(이전 -0.3) 미 7월 근원 PPI(%YoY)(이전 +4.7) 미 7월 근원 PPI(%MoM)(이전 +0.1)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4 한 6월 통화공급 M2(%MoM)(이전 +0.8) 미 7월 소매판매(%MoM)(이전 +0.2) 미 7월 근원 소매판매(%MoM)(이전 -0.2) 미 8월 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P]	15
17	18 미 7월 수입물가(%YoY)(이전 +7.1%) 미 7월 수입물가(%MoM)(이전 +0.3%) 미 7월 수출물가(%YoY)(이전 +10.2%) 미 7월 수출물가(%MoM)(이전 -0.6%)	19	20 미 8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전 +41.4)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일정 7월 FOMC 회의록 (03:00)	21 한 7월 PPI(%YoY)(이전 +8.6) 한 8월 1~20월 수출/입(%YoY) (이전 +52.3, +20.0) 미 8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P] 미 8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P] 미 8월 S&P 글로벌 종합 PMI[P]	22
24	25 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이전 106.8) 미 8월 CB 소비자기대지수	26 미 7월 PCE(%YoY) 미 7월 PCE(%MoM) 미 7월 근원 PCE(%YoY) 미 7월 근원 PCE(%MoM) 미 2분기 GDP(%QoQ)[S] 미 2분기 GDP 물가지수(%QoQ)[S]	27 한 8월 BOK 금리결정(%)(이전 2.75)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일정 8월 금융통화위원회(09:00), 한은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담회(11:10) 채스홀 경제정책 심포지엄(27일~29일)	28 미 8월 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F]	29
31 한 7월 산업생산(%YoY) 한 7월 산업생산(%MoM) 미 8월 델리스 연준 제조업 활동					

Compliance Notice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최제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